

겸재·추사의 '법고창신' 정신 평생 가슴에 새겨

최완수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의 학문인생

조선 후기 '진경시대'(眞景時代)는 한국사를 배우며 가슴이 뛰는 시기이다. 조선고유색을 한껏 드러낸 문화절정기였다. 기간은 숙종 대에서 정조대까지 125년간. 이때 겸재 정선의 산수화와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를 비롯해 조선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꽃을 피웠다. 그중 겸재와 추사는 진경시대 한 중심에 우뚝 솟은 봉우리였다.

가헌(嘉軒) 최완수(75)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소장은 겸재와 추사를 평생 연구해 왔다. 최근 45년에 이르는 추사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추사명품'을 펴낸 최 소장을 만나 학문인생에 대해 들었다.

45년 추사 연구의 완결판

“추사를 일평생 연구하다가 마무리를 지었으니가 얼마나 진이 빠졌겠어요. 제자들이 많이 도와서 이뤄진 일이지 나 혼자 어렵죠.”

80쪽 분량의 이번 책은 한국 서사 최고의 명필이자 불세출의 대학자인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 선생이 남긴 수많은 글씨와 그림, 인장 등 작품들을 편역(編譯), 입서(臨書), 시화(詩話), 대련(對聯), 서첩(書帖), 회화, 서간(書簡), 비석 등 8개 분야로 나눠 시대 순으로 배열하고,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었다. 특히 작품에 사용된 인장을 시대별로 분류하는 등 추사의 작품세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책 표지에는 '물푸레 침' 자가 추사체로 큼직하게 디자인돼 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추사 제자인 침계 윤정원이 스승에게 부탁을 했는데 30년 후에야 써주었어요. 추사는 반드시 전고(典故)가 있어야 했어요. 할 수 없이 '나무 목'(木)번 해서와 수당 대에 만든 비석에서 끌어온 '봉우리 침'(峯) 예서를 합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지. 추사선생의 법고창신(法古創新=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정신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선생은 서울 성북구 간송미술관 2층 연구실에서 기사를 맞았다. 연구실 벽에는 선생의 좌우명인 '경경위사'(經經緯史=경전을 날줄로 삼고, 역사를 씨줄로 삼아라) 가로 편액이 걸려 있다. 경남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께 최 소장이 청해 받은 글씨다.

간송미술관서 추사와 인연

최 소장은 추사 고택이 있는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공리와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둔 건넌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나 추사와의 인연은 간송미술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최 소장은 어릴 적부터 지적 호기심이

추사 연구 집대성 '추사명품' 펴낸 서산 마애삼존불 찾다 죽을 고비도 겸재 산수화 통해 진경시대 연구 제자들과 '간송학파' 학맥 일궈



강하고, 타고난 '호고백'(好古癖=옛것을 좋아하는 별난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노인들의 옛 얘기자리에 끼어들어 귀동냥으로 우리

역사에 대해 들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역사가 일제에 의해 왜곡변조된 사실을 알고 어린 마음에 이를 바로잡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서울 경북고 1학년 겨울방학 때는 고향 인근 산에서 서산 마애삼존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직접 찾아가려다 4시간 가량 산속에서 헤매며 자칫 동사할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 1961년 서울대 사학과에 입학한 후 한복차림으로 다니며 대장경을 읽었다.

불상연구를 위해 접한 대장경은 최 소장이 간송미술관에 자리잡게 된 계기가 됐다. 1960년대 중반에 대장경을 갖춘 곳이 드물었고,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보기도 번거로웠다. 그런데 1966년 4월에 간송미술관에 한국민족미술연구소가 차려지면서 해곡 최순우 선생으로부터 '이곳에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현장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간송미술관에 들어서니 연구실 책상 안에 포장을 채 뜯지 않은 '대정신수 대장경'(일본이 대정11년인 1922년에 기획해 1932년 현대 활자로 인쇄한 대장경) 100권이 꽂혀 있었다. 선생은 두말없이 바로 있겠다고 말했고, 매일 연구소 일을 마친 후 밤새워 대장경을 '너털너털해질' 정도로 읽었다.

조선왕릉 연구는 후학들에

간송미술관에 와서 초창기 한 일은 소장하고 있는 고서적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 피난을 갔다오며 정리 안된 책들이 산적해 있었다. 전쟁통에 많은 소장품이 망실됐다고 한다.

최 소장은 1971년 10월 개관 첫 전시를 준비하며 겸재 정선의 산수화를 처음으로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겸재와 추사 연구에 몰두하며 조선역사에서 문화적 에너지가 분출되던 '진경시대'의 정점으로 이



늘 두루마기 차림을 하는 최완수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소장. 평생동안 '경전을 날줄로 삼고 역사를 씨줄로 삼아라'(經經緯史)를 좌우명 삼아 불상과 겸재 정선, 추사 김정희 연구에 매진해왔다.

어졌다. 나이가 진경시대 연구를 통해 일제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며 한국사에 깊이 박힌 일제 식민사관을 걷어낼 수 있었다. 또한 진경시대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자들과 왕릉조사에 나섰다. 500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 변화를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미술사 연구주제로 왕릉을 주목한 것이다. 조사를 해보니 당시 서울사람들, 사대부들 얼굴모습이 그대로 조각이 돼 있어 '신바람나게'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문화 글로벌 시대인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진경시대'에서 배울 점은 뭐가? 최 소장은 '법고창신'과 '융합정신'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학문의 길에서 많은 스승을 만났다. 그중 경북고 시절 한학자인 백아 김창현 선생과 서울대 동문 김상기 교수, 해곡 최순우 선생은 오늘날의 최 소장을 이끌어준 평생 스승이다.

최 소장 역시 여러 분야 5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월 1회 스터디 하며 '간송학파' 학맥을 일구고 있다. 학문적 목표를 이룬 노학자의 남은 꿈은 뭐가? 그는 자신이 마치지 못한 추사 평전을 마무리하고, 왕릉 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일을 후학들에게 기대했다.

/서울=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 3월 8일 오전 뉴욕 웨스트 리트 증권거래소 앞. 여느 때 처럼 출근길을 재촉하던 월가의 직장인들은 난데 없는 소녀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브론즈 동상이 하룻밤 사이에 등장한 것이다.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겁없는 소녀'상(像·Fearless Girl)이었다.

사연은 이렇다. 보스턴 투자회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남성중심의 월가에 경종을 울리는 이벤트를 고민하던 끝에 공조형물을 세우기로 했다. 유리천

로와 서울역 광장을 잇는 높이 17m, 길이 100m의 설치작품을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지난 2011년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정원 박물관 첼시플라워소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황지해 작가에게 상징조형물을 의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다. 낡은 신발을 예술품 되살려내는 콘셉트로 폐기된 신발 3만 켤레를 쌓아놓은 '슈즈트리'가 설치되자 시민들의 헛터를 뒤흔트리는 흉물이라는 비난이 쇄도한 것이

'슈즈트리' 철거가 남긴 교훈

장으로 좌절하는 여성들이 기업의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서였다. 유명조각가 크리스틴 비르발이 제작한 '겁없는 소녀'상은 이름과 달리 아담하고 사랑스럽다. 키 130cm, 몸무게 110kg. 양 옆구리에 팔장을 끼고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프랑스 화가 에드가 드가의 '댄서'와 유사하다. 하지만 드가의 소녀상이 연약한 이미지라면 월가의 소녀상은 담대한 투사에 가깝다.

아니나 다를까, '겁 없는 소녀'상은 순식간에 뉴욕의 명물로 등극했다. 수많은 관광객과 뉴요커가 동상 앞에서 포즈를 흉내내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SNS를 타고 급속히 퍼져나갔다. 작품의 스케일 보다는 메시지와 최적의 장소를 골라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결과였다.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역 고가 '서울로'의 설치 작품 '슈즈트리'(Shoes Tree)가 논란 끝에 철거됐다. 온갖 화제를 뿌리며 일 반에 선보인 지 9일 만이다. 사실 '슈즈트리'는 서울시의 야심작이었다. 시민 보행길로 조성되는 서울

로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번 '슈즈트리' 논란은 공공조형물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 소중한 계기였다. 근래 유행처럼 전국에 들어오고 있는 공공조형물 가운데 상당수가 관(官)의 전시행정에 의해 '기획된' 산물이다. 작품에 대한 메시지와 장소에 대한 고민없이 일부 단체장의 '입김'에 의해 추진되다 보니 예술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하다.

영국에는 공공장소에 세워진 흉물스런 조형물을 선정해 망신을 주는 '저게 뭐야'(What's That Thing?)상이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사주간지 'The Spectator'가 매년 최악의 조형물을 선정해 수상하는 상인데 심사기준은 시민들의 이메일 제보라고 한다. 그래서 말인데, 문득 궁금해졌다. 만약 광주에서도 '저게 뭐야 상'을 뽑는다면 불명예의 주인공은 누가? 평소 거리를 지날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흉물은?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영화 '아가씨' 정서경 작가 9일 하정우미술관서 강의

영화 '아가씨' 시나리오를 쓴 정서경 작가가 9일 오후 7시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우미술관 인문학강좌 강사로 나선다.

정 작가는 '나와 당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꿈을 잃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희망 메시지를 건넨다. 정 작가는 영화 시나리오에 흥미를 느껴 서울대 철학과를 중퇴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시나리오과로 진학했다. 이후 단편제

작 공모전에서 박찬욱 감독을 만나 영화 '친절한 금자씨' '씨이보그'지만 관촬

이런 강연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주' 등을 함께 작업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결혼·출산·집·경력·희망·취미·인간관계)세대들에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62-613-71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